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보도자료

2022.8.10.(수)

담당 : 빅테크 갑질 대책TF 유정주 의원실(02-784-9401)

※ 행사장소측 요청으로 사전 출입신청이 필요합니다. 취재를 원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8월 10일(수요일) 오후4시까지 유정주 의원실 (784-9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웹툰 정산정보제공 시연 및 플랫폼·창작자 상생간담회〉

빅테크 갑질 대책TF, 카카오엔터 찾아 정산정보시스템 '파트너 포털' 점검

- 플랫폼과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오는 8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에서 '웹툰 정산정보제공 시연 및 플랫폼·창작자 상생간담회'를 개최한다.

2차적 저작물 사용시 별도 계약을 맺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을 사용하는 등의 웹툰·웹소설 분야의 불공정행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게 이슈화된 바 있다. 이에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웹툰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매월 1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상생간담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작가용 정산서'의 개선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날 '파트너 포털'이라는 이름의 정산정보 제공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TF는 문체부로부터 웹툰 상생협의체 진행상황을 듣고, 상생협의체 참여 창작자들과 웹툰계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간담회를 준비한 '빅테크 갑질 대책TF'의 유정주 의원은 "내 작품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누구보다 창작자가 가장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플랫폼들이 작가용 정산 사이트 등을 구축한 것은 환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지속적인 업계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면서 플랫폼 역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공정을 바로잡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달 6일 출범했다. 이와 함께 현장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사업자, 관련 협단체와 함께 현안 해결 및 입법 개혁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예정이다. 끝

2022. 8. 10.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

□ 세부 일정(안)

시간일정	내 용	비 고	
~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단 도착 		
10:30 ~ 10:4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홍근 원내대표 인사말씀 ■ 한준호 빅테크 갑질대책 TF 팀장 모두발언 ■ 이진수 카카오웹툰 대표이사 환영말씀 ■ 참석자 소개 ■ 기념촬영 	공개	사회
10:45 ~ 10: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툰 상생협의체 진행상황 간략 보고(문체부) 		유정주
10:50~10: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 포털(정산정보제공 시스템)' 시연(카카오엔터) 	비공개	의원
10:55 ~ 11:2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정보제공 시스템에 대한 창작자 의견 청취 ■ 웹툰 현안 관련 자유발언 		
11:25 ~ 11: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홍근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